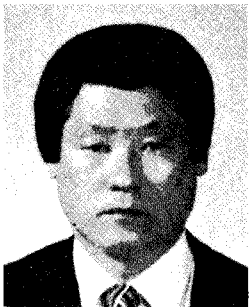


#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협회를 구심체로하여 생산자가 단합해야 한다.

경제여건이 나아져  
선진국이 될수록  
적색육 선호에서  
백색육 선호로 전환된다.



안 명 수  
대한양계협회  
전남지부장

지난 87년도 정묘년 한해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해를 보내면서 무엇인가 우리 마음 한구석에 허탈감을 남겨둔채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나 주신 전국양계인들의 그동안 그 능력과 지력에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내일의 힘찬 전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하여 몇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16년만에 직접 내손으로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시련과 불안 긴장감이 감도는 환경속에서 선거열풍으로 인한 기현상으로 여타산업들이 비명의 호경기속에서 흥청망청한 독특한 재미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히도 양계산업만큼은 활기를 펴보지 못하고 생산비도

못되는 유통과 소외식품으로 침체되어 왔음에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썰마태풍에 의한 홍수의 피해, 걸잡을 수 없는 노사분규로 양계산물의 급격한 소비감축과 체화현상으로 그 후 유증이 지금도 가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육동향을 분석해 보면 채란계는 80년초는 2천7백만, 87년 하반기는 4천5백만수, 브로일러는 80년초는 1억2천만수, 87년 하반기는 2억6천만수였음을 보면 엄청난 생산과잉으로 출하와 유통의 수급불균형으로 병목현상의 상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우리가 대두병을 거꾸로 넘겼을 경우 병목상태로 됨) 산란계노계까지 파급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진복지국가로 태동키 위한 대통령은 선출됐지만 우리 산업 전체가 완전한 민주화가 정착되기까지는 향후 3년의 과도기가 있

을 것입니다. 이 과도기에 아무리 사업을 번창해 돈을 벌고 싶어도 투자한 것만이 손실이 뒤따르므로 현상태 유지 보존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86년~87년도는 이른바 3저시대의 국제적 호전속에서 안정을 추구 했지만 88년도에는 3저에서 3고시대로 탈바꿈 되어가는 어려운 국면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 곡물가격의 급속한 가격 상승 사료가격 고가시대

둘째: 노사분규로 인한 인건비의 급상승

셋째: 88년 농축산물 무제한 수입개방으로 사상 유례없는 가격폭락으로 경영수지 불안해서 양계산업 부도사태 파급될 것이 명확관화한 사실입니다. 업계의 전문가들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산과잉과 유통에만 문제가 아니라 양계산업을 저해시키는 저해 요인들이 여기저기서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국의 보호무역 협력과 수입개방 자유화 물결이 거세게 밀어 닥치고 있고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여타 산업들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국제경쟁력 속에서 모든 산업들과 당당하게 정면 충돌의 시대로 투쟁해서 싸워야 할 이긴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양계산물의 상품고급화시대, 유통의 근대화, 가공식품의 개발, 양계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사업으로 소비자의 입안에



넣기까지의 과정을 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양계인들은 일시적인 투기사업이나 남이야 어쩌든간에 나만 이익이 된다면 좋다는 한탕주의적인 사고방식, 불신평조의 팽배, 배타적 심리고조, 무계획적인 사고방

### 오늘의 불황을 타개하는 길은 오직 생산자들의 단합뿐이다.

식, 시설증축과 입추 과열이 자행된다면 사양길로 접어들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남 양계협회는 회원 모두가 구심체로 똘똘뭉쳐 주어서 그래도 협정가격이 고수되고 있다는 것은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국산하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자 스스로가 단독 협정은 유일하게도 전남양계협회 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협회에서 가격 조절하는 것이 당연히 협회에서 해 줄 것이다라고 무관심을 갖는다면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계협회란 구심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산업이 소외산업, 사양산업이라고 한다는 말도 있으나 선진국가로 들어갈수록 기호성이 높아지며 선진국 식품 구조를 분석해 보더라도 적색 육식에서 백색계 식품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산업은 역시 양계산업이란 자부심을 갖고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일본, 미국도 닭고기가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움츠려 있다는 것은 좀더 멀리 뛰어 보기 위한 준비단계로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비록 3년간이란 긴 불황의 터널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좀더 멀리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로 알시고 전쟁터에서도 전진과 후퇴가 병행되어야 작전타임을 세우듯이 현 불황을 극복하면 틀림없이 낭만과 환희의 그날이 꼭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여 자신감을 갖고 우리 모두 절망하지 않고 전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모두 공감대 형성의 협조자가 되어 협회를 더욱 주인의식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소명에 부응할 수 있는 선구자 역할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계**